

##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어울리는 의복색 경향\*

박 화 순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The Trend of Clothing Colors Fitted for Personal Color Types

Hwa-Soon Park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aegu University  
(2002. 2. 23 투고)

#### ABSTRACT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lothing colors fitted for personal color types and to help consumers express individual characteristics by clothing colors suitable for themselves. The comparison of sixty three clothing colors with three personal color types, and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best clothing colors of each type have led to the following results.

Those belong to warm Personal Color Type don't have a variety of choices for clothing colors, so they should be careful of choosing clothing colors. They will do well to choose dark tone colors for their clothing.

Those of Cold Personal color Type have a wide range of choices for clothing colors. They have an advantage of expressing themselves in various ways. Neutrals, Blue and Yellow have been found to go well with them.

Those of Mixed Personal Type are advised to wear bright and pale tone colors such as Purple, Green, and Red.

It will be desirable that the choice of clothing colors should conform to each personal color for the tones of clothing colors should conform to each personal color for the tones of clothing colors make difference according to personal color types.

Key Words: Personal color(개인색채), Clothing color(의복색)

---

\* 이 논문은 2000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I. 서론

개인의 자아 이미지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취향을 독특하게 하는 특별하고, 개인적인 성향들을 보여준다. 개인의 이미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굴, 머리, 체형 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과 역할 특성에 따라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다. 특히 인체적 특성중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여유와 자신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상형성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얼굴모양과 헤어스타일, 의복 스타일 등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이미지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색채와 의복색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나타난 신체 색을 찾아내어 개인 색채의 특징에 어울리는 의복색을 찾아냄으로써 의상 연출을 개인의 이미지와 조화롭게 하여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돋보이게 하면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자기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기 개성에 맞는 의상연출을 통하여 즐거움, 아름다움, 행복감 등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으며, 상품선택이나 구매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개인색채와 의복색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며, 1980년에 이르러 Carole Jackson은 그의 저서 *Color Me Beautiful*에서 개인색채를 4계절로 분류하여 그에 어울리는 의복색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하였다.<sup>1)</sup> 橋本令子の 2인<sup>2)</sup>은 피부색과 복장색의 조화 연구에서 일본인의 핑크계와 내츄럴계의 피부색에는 적색, 자색계통의 vivid, bright, dull, dark, light gray, deep 톤, medium Gray, 이보다 약간 채도가 높은 내츄럴계의 피부색에는 등색, 황색계통의 dark, deep 톤, 브라운계통 피부색에는 등색, 황색계통의 vivid, light 톤 Yellow계의 피부색에는 적색 녹색계통의 pale, bright 톤, 흰색이 어울리며, 각 피부색에 조화되는 의복색은 밝은 색이라고 하였다. Chiho Satoh<sup>3)</sup>는 얼굴색과 유사한 의복색과 명도가 높은 의복색은 평가가 좋고, 대비색과 명도가 낮은 검은색은 평가

가 나쁘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색채에 잘 어울리는 의복색 경향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의복을 구매할 때 자신의 색에 맞는 의복색을 선택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것이며, 개인색채와 의복색의 조화에 대한 기초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개인색채의 용어 정의

개인색채는 사람 각각의 그 특징적인 색채표현에 의해 그 사람의 인격, 개성, 역할을 나타내는 지적기능을 갖는 중요한 영역이다.

일반적 신체의 특징적인 색을 중심으로 보면 개인색채는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에 들어 있는 타고난 자연색이다. 자연 색에는 색상의 온도감과 명도의 속성이 있으므로 개인색채가 지닌 온도감과 명도에 맞는 색을 선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어 개인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살려준다.<sup>4)</sup> 또한 색채는 외모와 기분을 완전히 변화시킬 뿐 아니라 잠재적이지만 개인의 분위기에 강한 영향을 끼치므로 자신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신체의 색을 찾아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의복색을 입으면 한층 더 세련미를 더해 준다. 피부색은 옷, 화장, 장신구 등 사람이 입는 모든 다른 의복색의 기본바탕으로 작용한다.<sup>5)</sup>

이상에서 개인색채는 개인의 타고난 피부색과 머리카락색, 눈동자 색에 나타나는 자연 색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피부색과 머리카락색을 기본요소로 한 박화순<sup>6)</sup>의 개인색채 분류에 따라 잘 어울리는 의복색을 찾아내고자 한다.

- ① 따뜻한 형- 노란빛을 많이 지닌 약간의 누런 피부색과 갈색 머리카락색을 지닌 형
- ② 차가운 형- 창백한 피부색과 푸른빛이 도는

검은 머리카락색을 지닌 형

- ③ 복합형- 노란빛과 붉은 빛이 적당히 섞인 복숭아빛 피부색과 암갈색의 검정머리카락색을 지닌 형

이상에서 개인색채의 각 요소에서 나타나는 색을 온도감으로 분류하여 노란빛을 지닌 것을 따뜻한형으로 푸른빛을 띤 것을 차가운형으로, 두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 2. 개인색채와 의복색

개인색채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따뜻한형이나 차가운형으로 설명하고 의복을 선택할 때 자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 분류를 중요시 여긴다.

한 의상에서 따뜻한 범주의 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동일색을 여러 톤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특정 개인의 기호를 나타내기 위해 온도감이 반대인 색을 사용하여 대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sup>7)</sup>

피부색과 머리카락색의 명도 차가 적을수록 아주 잘 어울리는 의복색의 범주는 좁고, 명도대비가 클수록 색의 범주가 넓다. 이 두 색상간에 차이가 크면 의복색의 효과와 더불어 둘 중 어느 쪽을 강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색상을 잘 활용하면 피부색과 머리카락색이 더욱 좋아 보인다.<sup>8)</sup>

McJimsey<sup>9)</sup>는 색채를 선택할 때는 사람이 관심의 중심이어야 하고, 색채나 배색이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차가운형 사람들은 찬색이 더 잘 어울리는 반면 따뜻한형 사람들은 따뜻한 색이 더 잘 어울린다. 흰색이든 파스텔색이든 금발의 밝은 명도와 잘 어울리며, 황갈색이 청록색으로 강조될 때(부조화를 이루지만) 파란색 눈동자색의 금발머리에겐 아주 잘 어울린다. 황갈색 머리는 중화된 따뜻한 색상, 갈색, 베이지, 아이보리, 노랑, 연두 빛 녹색과 잘 어울린다. 피부색이 따뜻한 형이면 부드러운 복숭아빛이 어울리고, 색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피부색과 조화를 이룬다. 아메리카 인디안이나 흑인들이 지닌 짙은 피부색은 따뜻한 색

에 진한 빨강, 적갈색, 금색, 밝은 노랑, 오렌지, 연두색을 입을 때 더 좋아 보인다. 차가운형 피부색에 금발머리는 청록, 청보라, 자홍, 밝은 청회색의 색조가 잘 어울린다. 황금색, 올리브나 연두빛 녹색, 브라운은 따뜻한형의 갈색머리에 어울린다. 산호색은 따뜻한형의 피부색에 어울리며, 찬 핑크는 차가운형에 어울려서 친화감을 준다. 노란 색과 푸른색을 동시에 가진 복합형은 미국에서는 흔한 유형이다. 고채도와 저채도의 색은 어울리지 않는 의복색이다. 복합형은 자기의 피부색과 머리카락색 또는 눈동자색 중에 어느 것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색 중 따뜻한 쪽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찬쪽을 강조할 수 있다. 의상에서 찬색과 따뜻한색을 적절한 비율로 결합함으로써 양쪽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

<표 1> 개인색채 유형에 어울리는 의복색

연구자	분류	들보이는 색	피해야 할 색
Mc-Jimsey (1973)	따뜻한형	따뜻한색, 복숭아색, 금발; 블루 계열 (청록, 청보라, 자색, 파랑색) 파스텔색의 찬갈색, 갈색머리카락, 황금색, 올리브색, 연두빛녹색, 갈색	흰색(주홍 빛 빨강, 중명도의 밝은 파랑 제외) 고채도
	차가운형	찬색, 선명한 색, 보라빛 핑크, 갈색 머리카락; 청록, 청보라, 자홍, 밝은 청회색, 군청색, 장미색, 청록	
	복합형	다양한색, 중명도, 중채도의 색, 푸른빛 빨강, 녹색, 파란 빛 갈색	고채도, 저채도 색
Mathis & Connor (1994)	따뜻한형	따뜻한 색상군	찬색
	차가운형	찬 색상군	따뜻한 색
	복합형	따뜻한 색과 찬색을 주된 색과 강조색으로 배색	

Mathis와 Connor<sup>10)</sup>는 따뜻한형은 심리적으로 따뜻한 색상군에서 선택하고 차가운형은 찬색계열에서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다. 자신의 색과 반대되는 색을 입고 싶으면 상대적으로 자기 색을 지닌

색상군을 선택한다. 복합형의 경우 찬색을 입을 때는 따뜻한 금색 보석류를 착용하고 따뜻한색을 입을 때는 찬 은색의 장신구를 착용하면 좋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색채가 따뜻한 형은 따뜻한 느낌의 색상군을 선택하고 차가운형은 찬색계열의 의복을 선택하여 입으므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생기 있게 보여준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인색채에 따라 가장 잘 어울리는 의복색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어울리는 의복색은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실험 자극물 제작

##### (1) 개인색채 유형별 모델 선정

개인색채의 유형은 여대생 160명을 대상으로 하여 피부색, 머리카락색을 미놀타 CR-300을 사용하여 측색 실험하여 군집분석한 결과 3유형으로 분류되었다.<sup>11)</sup> 즉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의 모델은 유클리디안 거리측정법을 이용하여 개인색채 요소별 평균점에 근접한 모델을 각 유형별로 5명

을 선정하여 자연 머리카락색을 지닌 사람 중에서 머리스타일과 얼굴표정 등이 유사한 모델을 각각 1명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의 개인색채의 요소별 측정값은 <표 2>와 같다.

##### (2) 자극도구

자극물 제작은 화장을 하지 않은 자연상태로 개인색채 모델 3유형에 실험의복 상의는 가로 1M 세로 1M의 광폭으로 바이어스 폭을 얼굴 가까이 대어 자연스럽게 상체가 덮히도록 하여 각각 착의시켜 <그림 1>과 같은 실험환경 즉 모델을 N6.95의 회색판 배경에서 50cm 떨어진 의자에 앉히고, 모델로부터 약150cm 떨어진 곳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였다. 맑은 날 북쪽 전면창가에서 모델 앞면은 ANA-999 ULX-Meter 조도계로 조도 500-520룩스가 되도록 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각각 5회 실시하여 표정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진을 골라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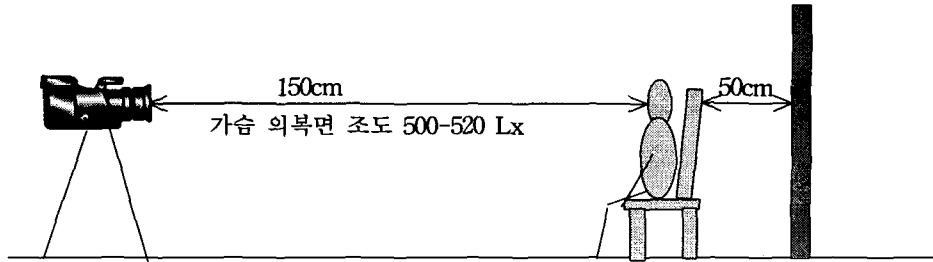
자극물의 의복색 제작에 사용된 컴퓨터는 맥킨토시 8500, 칼라 프린트는 Epson 잉크젯프린트 ST-1520H, 프로그램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실험용 의복색을 시뮬레이션 시켰다.

자극물의 크기는 가로 8cm 세로 10.5cm로 하였으며, 배경색은 흰색으로 하였다.

<표 2> 실험모델의 개인색채 요소

항 목	모델형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		
		측색점	L	a	b	L	a	b	L	a
피 부 색	팔 목	59.52	5.79	12.10	61.18	4.11	9.66	63.61	4.93	11.53
	손바닥	60.54	9.43	11.70	60.96	6.06	11.12	62.49	7.80	12.82
머리카락색	측 면	16.18	1.08	1.72	26.09	1.39	-1.66	18.13	1.24	2.24
	정수리	16.43	0.51	1.26	26.03	1.48	-1.60	16.88	0.98	1.68

L: 밝기 a: +Red -Green b: +Yellow -Blue



<그림 1> 모델 촬영 환경

(3) 실험 의복색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어울리는 의복색 평가 실험의 색상은 먼셀의 5원색 Red, Yellow, Green, Blue, Purple을 따뜻한 느낌의 색(노란색기미가 있는 색)과 찬색 느낌의 색(파란색기미가 있는 색)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2.5와 7.5를 선택하여 10색상을 선정하였다. 톤은 PCCS의 톤 분류를 참고하여 색차를 두기 위해 명도단계와 채도단계를 고려하여 vivid, bright, deep, dull, light, dark의 6톤을 선정하였고, 흰색, 회색, 검정색 등 무채색 3색을 선정하여 총63색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색채의 먼셀값은 <표 3>과 같다.

극물을 63번 제시하여 개인색채와 의복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개인색채 유형을 찾아서 각각 표시하게 하였다.

평가방법은 자극물 순서에 영향을 고려하여 색상과 톤이 고루 분포되도록 11개의 묶음으로 하여 평가순서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평가에 걸린 시간은 평가자가 색을 인지하는 차이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평가자 및 평가시기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가장 잘 어울리는 의복색을 평가하기 위한 본 실험은 의상디자인을 전공한

<표 3> 실험의복색

Tone		vivid(v/c)	bright(v/c)	deep(v/c)	dull(v/c)	light(v/c)	dark(v/c)
Hue							
2.5R	cool	4/14	6/10	3/10	5/8	8/4	2/4
7.5R	warm	4/16	6/12	3/12	5/8	8/4	2/4
2.5Y	warm	8/16	8.5/10	6/10	7/6	9/4	3/4
7.5Y	cool	8.5/12	8.5/8	6/10	7/6	9/4	3/4
2.5G	warm	5/12	7/10	3/10	6/6	9/4	2/4
7.5G	cool	4/10	7/8	3/8	5/6	8/4	2/4
2.5B	warm	5/10	7/8	3/8	5/6	8/4	2/4
7.5B	cool	5/10	7/8	3/8	5/6	8/4	2/4
2.5P	cool	4/12	7/8	2/8	4/6	8/4	2/4
7.5P	warm	4/12	7/8	3/8	5/6	8/4	2/4
무채색		White	N 9.5	Gray	N 5.5	Black	N 1

2) 개인색채에 어울리는 의복색 평가 도구 및 방법

개인색채 유형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의복색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도구는 3유형의 개인색채에 실험색채 한개의 의복색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자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 학생과 교수, 패션디자이너 등 20명의 전공자를 평가자로 구성하였다. 평가자 집단을 전공자로 구성한 이유는 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한다는 Delong<sup>12)</sup>의 견해에 근거하여 색채의

예민한 차이에 대한 평가가 학습이나 디자인 경험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평가시기는 2000년 3월에 맑은 날 직사광선을 피하고 조도를 고려하여 실내 자연광원에서 11시에서 15시 사이에 실시하였다.

### 3. 분석방법

통계처리는 SAS를 이용하였으며 개인색채 유형의 모델을 찾기 위하여 중심간 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D_i^2 = \sum_{k=1}^p (x_{ik} - \bar{x}_k)^2$ ) 사용하였다. 개인색채의 유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의복색은 기술통계와 카이검증을 행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개인색채와 어울리는 의복색

개인색채 3유형에 한색의 의복색을 동시에 비교하여 각 색상별로 개인색채가 가장 돋보이는 유형을 선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Red계열색

Red계열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개인색채 유형을 <표 4>에서 비교해 보면, 따뜻한형은 Red색 의복이 다른 유형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따뜻한형에서 비교해 보면 cool Red의 deep 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warm Red계열이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차가운형은 deep, dull, dark 톤에서 즉 중, 저채도의 색과 cool Red의 vivid 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형은 전반적인 Red색에 대하여 bright, light 톤 즉 밝고 연한 색과 warm Red의 vivid 톤에서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색채의 세 유형에 대해서 집단간의 차이는 2.5 Red의 vivid, bright, dull, light, dark 톤과 7.5

Red의 bright, light 톤에서 P<.05 이상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4> Red계열색이 가장 어울리는 개인색채

의복색	개인색채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		$\chi^2$
	N	%	N	%	N	%	N	%	
C	2.5R / v	2	10.0	13	65.0	5	25.0		9.700**
	2.5R / b	2	10.0	6	30.0	12	60.0		7.600*
	2.5R / dp	7	35.0	8	40.0	5	25.0		0.700
	2.5R / d	1	5.0	11	55.0	8	40.0		7.900*
	2.5R / lt	1	5.0	9	45.0	10	50.0		7.300*
	2.5R / dk	4	20.0	12	60.0	4	20.0		6.400*
W	7.5R / v	7	35.0	4	20.0	9	45.0		1.900
	7.5R / b	5	25.0	3	15.0	12	60.0		6.700*
	7.5R / dp	4	20.0	10	50.0	6	30.0		2.800
	7.5R / d	6	30.0	9	45.0	5	25.0		1.300
	7.5R / lt	3	15.0	4	20.0	13	65.0		9.100*
	7.5R / dk	8	40.0	9	45.0	3	15.0		3.100

\*P<.05, \*\*P<.01

#### 2) Yellow계열색

Yellow계열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개인색채 유형을 <표 5>에서 비교해 보면, 따뜻한형은 cool Yellow색의 dark 톤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가운형은 warm Yellow색에서 bright, deep, light, dark 톤이 잘 어울리고, cool Yellow색에서 vivid, deep, dull, light 톤에서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Yellow색 의복은 전반적으로 차가운형에게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형

<표 5> Yellow계열색이 가장 어울리는 개인색채

의복색	개인색채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		$\chi^2$
	N	%	N	%	N	%	N	%	
W	2.5Y / v	3	15.0	8	40.0	9	45.0		3.100
	2.5Y / b	1	5.0	12	60.0	7	35.0		9.100*
	2.5Y / dp	5	25.0	10	50.0	5	25.0		2.500
	2.5Y / d	2	10.0	6	30.0	12	60.0		7.600*
	2.5Y / lt	1	5.0	12	60.0	7	35.0		9.100*
	2.5Y / dk	6	30.0	11	55.0	3	15.0		4.900
C	7.5Y / v	4	20.0	11	55.0	5	25.0		4.300
	7.5Y / b	2	10.0	7	35.0	11	55.0		6.100*
	7.5Y / dp	6	30.0	10	50.0	4	20.0		2.800
	7.5Y / d	4	20.0	10	50.0	6	30.0		2.800
	7.5Y / lt	1	5.0	11	55.0	8	40.0		7.900*
	7.5Y / dk	10	50.0	7	35.0	3	15.0		3.700

\*P<.05

은 warm Yellow색에서 vivid, dull 톤과 cool Yellow 색에서 bright 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색으로 나타났다.

개인색채의 세 유형에 대해서 집단간의 차이는 2.5 Yellow색의 bright, dull, light, dark 톤에서 7.5 Yellow색의 bright, light 톤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Green계열색

Green계열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개인색채 유형을 <표6>에서 비교해 보면, 따뜻한형은 warm Green색의 dark 톤 의복색에서 차가운형과 같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가운형에서는 bright, deep, dark 톤에서 잘 어울리며, cool Green의 dull 톤에서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형에서는 vivid, light 톤이 잘 어울리며, warm Green의 dull 톤에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색채의 세 유형에 대해서 집단간의 차이는 2.5 Green의 deep 톤과 7.5 Green의 light 톤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Green계열색이 가장 어울리는 개인색채

개인색채 의복색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		χ <sup>2</sup>
	N	%	N	%	N	%	
W	2.5G / v	3 15.0	8 40.0	9 45.0	3.100		
	2.5G / b	4 20.0	11 55.0	5 25.0	4.300		
	2.5G / dp	6 30.0	12 60.0	2 10.0	7.600*		
	2.5G / d	7 35.0	5 25.0	8 40.0	0.700		
	2.5G / lt	4 20.0	7 35.0	9 45.0	1.900		
	2.5G / dk	8 40.0	8 40.0	4 20.0	1.600		
C	7.5G / v	5 25.0	7 35.0	8 40.0	0.700		
	7.5G / b	5 25.0	9 45.0	6 30.0	1.300		
	7.5G / dp	4 20.0	10 50.0	6 30.0	2.800		
	7.5G / d	4 20.0	10 50.0	6 30.0	2.800		
	7.5G / lt	1 5.0	8 40.0	11 55.0	7.900*		
	7.5G / dk	5 25.0	9 45.0	6 30.0	1.300		

\*P<.05

4) Blue계열색

Blue계열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개인색채 유형을 <표 7>에서 비교해 보면, warm Blue 의복색은 차가운형에서 모든 톤이 다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l Blue색 의복은 따뜻한형은 dark 톤에

서 잘 어울리며, 차가운형에서는 vivid, deep, light 톤이 잘 어울리고, 복합형에서는 bright, dull 톤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색채의 세 유형에 대해서 집단간의 차이는 2.5 Blue의 vivid, bright, light 톤과 7.5 Blue의 vivid 톤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Blue계열색이 가장 어울리는 개인색채

개인색채 의복색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		χ <sup>2</sup>
	N	%	N	%	N	%	
W	2.5B / v	1 5.0	10 50.0	9 45.0	7.300*		
	2.5B / b	1 5.0	11 55.0	8 40.0	7.900*		
	2.5B / dp	6 30.0	10 50.0	4 20.0	2.800		
	2.5B / d	5 25.0	8 40.0	7 35.0	0.700		
	2.5B / lt	1 5.0	10 50.0	9 45.0	7.300*		
	2.5B / dk	4 20.0	11 55.0	5 25.0	4.300		
C	7.5B / v	2 10.0	12 60.0	6 30.0	7.600*		
	7.5B / b	3 15.0	6 30.0	11 55.0	4.900		
	7.5B / dp	7 35.0	9 45.0	4 20.0	1.900		
	7.5B / d	4 20.0	7 35.0	9 45.0	1.900		
	7.5B / lt	3 15.0	9 45.0	8 40.0	3.100		
	7.5B / dk	10 50.0	6 30.0	4 20.0	2.800		

\*P<.05

5) Purple계열색

Purple계열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개인색채 유형을 <표 8>에서 비교해 보면, Purple색의 의복은 차가운형은 dull, dark 톤에서 잘 어울리며, 복합형에서는 vivid, bright 톤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l Purple색 의복은 따뜻한형에서 dark 톤, 차가운형에서 light 톤, 복합형에서 deep 톤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warm Purple색 의복은 차가운형에서 deep 톤, 복합형에서 light 톤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색채의 세 유형에 대해서 집단간의 차이는 2.5 Purple의 bright, light 톤과 7.5 Purple의 bright, dark 톤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8> Purple계열색이 가장 어울리는 개인색채

개인색채 의복색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		$\chi^2$	
	N	%	N	%	N	%		
C	2.5P / v	3	15.0	8	40.0	9	45.0	3.100
	2.5P / b	4	20.0	3	15.0	13	65.0	9.100*
	2.5P / dp	3	15.0	7	35.0	10	50.0	3.700
	2.5P / d	6	30.0	10	50.0	4	20.0	2.800
	2.5P / lt	1	5.0	10	50.0	9	45.0	7.300*
	2.5P / dk	7	35.0	7	35.0	6	30.0	0.100
W	7.5P / v	6	30.0	5	25.0	9	45.0	1.300
	7.5P / b	3	15.0	5	25.0	12	60.0	6.700*
	7.5P / dp	3	15.0	9	45.0	8	40.0	3.100
	7.5P / d	3	15.0	9	45.0	8	40.0	3.100
	7.5P / lt	2	10.0	8	40.0	10	50.0	5.200
	7.5P / dk	4	20.0	13	65.0	3	15.0	9.100*

\*P<.05

6) 무채색

무채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개인색채를 <표 9>에서 비교해 보면 흰색, 회색, 검정의 무채색의 의복색에서는 모두 차가운형만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색채의 세 유형에 대해서 집단간의 차이는 회색에서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무채색이 가장 어울리는 개인색채

개인색채 의복색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		$\chi^2$
	N	%	N	%	N	%	
W / N9.5	5	25.0	10	50.0	5	25.0	2.500
Gy/ N5.5	2	10.0	13	65.0	5	25.0	9.700*
Bk/ N1	6	30.0	8	40.0	6	30.0	0.400

\*P<.05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개인색채 유형별로 가장 잘 어울리는 의복색으로 따뜻한형에는 cool Yellow, Blue, Purple색과 warm Green의 dark 톤을 제외하고 잘 어울리는 색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가운형에서는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무채색 등 모든 색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퍼스널칼라 유형에 비해 특히 Yellow와 Blue색이 잘 어울리는 특징이 나타났다. 복합형에 잘 어울리는 의복색으로는 Red, Green, Purple 색상이 나타났다.

톤별로 분류하여 보면, 따뜻한형은 dark에서만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가운형은 warm색에서 deep, dark, dull, bright 순으로 어울리며, cool 색에서는 deep, dull, vivid, dark, light 순으로 나타났다. 즉, 무채색은 차가운형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채색과 조금 탁하고 어두운 색들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형은 warm색에서 vivid, light, bright 순으로 잘 어울리며, cool색에서는 bright, light, vivid 순으로 나타났다. 즉 맑고, 밝은 색과 연한색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유의도가 P<.05이상으로 나타난 의복색 경향을 정리하여 보면 <표 10>과 같다.

개인색채 유형에 잘 어울리는 의복색 경향은 색채의 온도감이 갖는 특징보다도 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뜻한형은 어울리는 색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색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차가운형은 비교적 의복색 선정에 어려움은 없으나 가능하면 고명도, 고채도, 저명도, 저채도의 의복색이 잘 어울린다. 복합형은 밝은색이나 연한색을 입으면 잘 어울리고 Blue계열색은 피하는 것이 좋다.

<표 10> 개인색채 유형별 의복색

의복색	개인색채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
7.5R	warm		b, lt
2.5R	cool	v, d, dk	b, lt
2.5Y	warm	b, lt	d
7.5Y	cool	lt	b
2.5G	warm	dp	
7.5G	cool		lt
2.5B	warm	v, b, lt	
7.5B	cool	v	
7.5P	warm	dk	b
2.5P	cool	lt	b
무채색		N5.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색채에 잘 어울리는 의복



색 경향을 조사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의 색에 맞는 의복색을 자신감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인색채 3유형에 따라 가장 잘 어울리는 의복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따뜻한형은 Red계열색과 무채색 의복이 다른 유형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Yellow계열색의 의복색은 cool Yellow색에서 dark 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en계열색 의복은 warm Green색의 dark 톤에서, Blue계열 의복색은 cool Blue색의 dark 톤이 잘 어울리며, Purple계열색의 의복색은 cool Purple색의 dark 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따뜻한형은 의복색의 선택이 다양하지 못하므로 의복색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짙은 색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차가운형은 Red계열색의 deep, dull, dark 톤 의복색이 잘 어울리고, cool Red의 vivid 톤 의복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Yellow계열색은 warm Yellow색에서 bright, deep, light, dark 톤 의복색, cool Yellow색에서 vivid, deep, dull, light 톤의 의복색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Yellow계열 의복색은 전반적으로 차가운형에게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en계열색 의복은 bright, deep, dark 톤에서 잘 어울리며, cool Green색은 dull 톤에서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Blue계열색에서 warm Blue 의복색은 차가운형에서는 모든 톤이 다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l Blue 의복색은 vivid, deep, light 톤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le계열 의복색은 dull, dark 톤에서 잘 어울리며, cool Purple색에서 light, warm Purple색에서 deep 톤의 의복색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인 흰색, 회색, 검정의 의복색에서는 모두 차가운형만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가운형은 의복색의 선택 폭이 넓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무채색과 푸른색, 노란색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형은 전반적으로 Red계열 의복색에 대하여 bright, light 톤, warm Red색의 vivid톤에서 잘 어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Yellow계열 의복색은 warm Yellow색에서 vivid, dull 톤과 cool Yellow색에서 bright 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의복색으로 나타났다. Green계열색은 vivid, light 톤이 잘 어울리며, warm Green색은 dull 톤에서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Blue계열색은 cool Blue색의 bright, dull 톤의 의복색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le계열 의복색은 vivid, bright 톤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l Purple색은 deep 톤에서, warm Purple색은 light톤의 의복색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합형은 Purple, Green, Red계열색으로 밝고 연한 색의 의복색을 선택하여 입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색채 세 유형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는  $P < .05$  이상의 유의수준에서 Red계열 의복색은 cool Red의 vivid, bright, dull, light, dark 톤과 warm Red의 bright, light 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Yellow계열 의복색은 warm Yellow색의 bright, dull, light, dark 톤에서, cool Yellow색의 bright, light 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Green계열 의복색은 warm Green의 deep 톤과 cool Green의 light 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Blue계열 의복색은 warm Blue의 vivid, bright, light 톤과 cool Blue의 vivid 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urple계열 의복색은 cool Purple의 bright, light 톤과 warm Purple의 bright, dark 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무채색 의복은 회색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의복색의 톤에 따라 개인색채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색채에 맞게 의복색을 선택하여 입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안점을 살펴보면, 따뜻한형에게 어울리는 의복색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유형에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실험 의복색상은 5원색에 국한되어 중간색상이 다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다양한 색상을 소화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세분화된 의복색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이 분야의 연구사례가 많지 않아서 비교 검증이 어렵고, 개인색채 유형 중심으로 실험모델을 선정함으로써 모델의 개인 이미지 즉 헤어스타일, 얼굴형, 체형 등 형태이미지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Carole Jackson, Color Me Beautiful, Ballantine Books, 1980, pp.17-25
- 2) 橋本令子 외 2인, 皮膚色と服装色との調和, 日本家政學會誌, 35(6), 1984.
- 3) 佐藤 千穂, 顔色の見えに及ぼすカラークロスの影響, 日本色彩學會誌, vol 21, 2, 1997,
- 4) Caral Mason Mathis & Helen Villa Connor, The Triumph of Individual Style, Timeless Editions, 1994, pp.113-153
- 5) JoAnne Nicholson, Judy Sewis-Crum, Jacqueline Thompson, Color Wonderful, Bantam Books, 1986, pp.6-7.
- 6) 박화순, 대학생들의 피부색과 머리카락색에 따른 개인 색채 유형 분류-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25, No.3, 한국의류학회, 2001, pp.516~24.
- 7) Michael Prior, Costume and Make-up, Phaidon, 1993, p.34
- 8)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Hall, 1980, pp.132-4.
- 9) Harriet T. McJi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1973, pp.216-24.
- 10) Caral Mason Mathis & Helen Villa Connor, op.cit. pp.113-153.
- 11) 박화순, op.cit
- 12) DeLong M.R., Larntz K., Measuring Visual Response to Clothing, H.E.R.J., vol. 8, 4, p.1980